

<2014년11월17일 월요일 선생님 새벽말씀 원본>

* 여호와께 감사하자 시118:1

* 1998. 11. 20. 금 아침말씀(월명동 자연성전 북편 벽화)

<시118>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시작되어서 한 주일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니 늘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직접 보기는 힘들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통을 통한 역사이고, 사명을 통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는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서 역사 하시는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늘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악하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악하고, 곰이 악하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악하게 구니까 악해지는 것일 뿐 본래 악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게 창조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인자하고, 공의롭게 대하지만, 사람들이 인자하게, 선하게, 공의롭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 인자하고, 선하게 대했는데도 자꾸 악하게 굴면 동물을 발로 차고 묶어놓고서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선하게 대하셨는데도, 만물을 선하고 인자하게 창조하셨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자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순리의 법칙을 거스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할 수 없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물건을 쓸 때도 만든 대로 써먹지 못하고 다르게 쓰면 안됩니다. 다르게 써먹으면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든 대로 써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인자하고 선하지 못하면 거기에 미치도록 그만큼 애를 쓰면서 거기에 도전하며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복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못 올라가면 안됩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으니 우리도 영원까지 가야합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 존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서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도 감사할 것이 생기지만, 행동해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많이 활동할수록 많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행동을 안 하면 감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루를 지내보고, 이틀을 지내보고, 1년을 지내봐도 자꾸 행동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방구석에 가만히 쳐 박혀 있으면 감사할 것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추운데 방안에 있으니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퇴보적인 세계라 감사를 해도 진가를 모르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향기 없는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써먹어 봐야 어느 정도 잘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 굉장히 세밀하고 지혜롭고 첨단으

로 가치 있고 멋있게 만들었어도 그것을 써먹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 대해서 감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써먹어 보니 너무나 멋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이 된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5가지로 쓰라고 만들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7가지로도 써먹습니다. 내가 써먹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을 때는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 감격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만들었습니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써먹습니까? 무리가 안 됩니까?” “괜찮더군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써먹어 봐야 감격한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큼 잘 만들었는지도 써먹을 때 알게되는 것입니다. 써먹을 때 여러 가지로 재미있고, 뜻있고, 가치 있고, 유능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게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많게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뜻, 저런 뜻을 깨우쳐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에는 잠재능력과 권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써먹고 그냥 있다가 죽는 사람들은 신에게 별로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언가 잘될 때마다 사람들은 신에게 감사하니까, 그만큼 뛰고 달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감격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적인 감사를 합니다. 더 감격을 하고,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 뛰어 다니고, 움직이고, 자꾸 무엇인가 배우고 터득할 때 감격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격할 것이 2/10로 줄고, 1/10로 줄고, 그러다가 그것까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애들 데리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녔습니다. 산에 안가면 운동장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의무적으로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하루에 8km씩 데리고 다녀야겠습니다. 산에 안가고 운동장을 뛰자고 하면 안나옵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뛰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깅 안나온 사람들은 어제 갔다온 코스를 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훈련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약한 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눈의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기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지땅에서 그러면 안됩니다. 코앞에서 운동하는데도 안나와 보면 안됩니다. 6바퀴 뛰는 것이 힘들면 걸어 다니기라도 해야하는데, 안 합니다. 사람이 너무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다고 7-80% 지적하십니다. 어떤 것이 게으름이냐고 할 때 자기가 1시간에 100발짝을 가는데, 100발짝을 못 가고 60발짝만 갔다면 그것도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게으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 해서 실력이 안 나는 것이니까요. 활동을 시키라고 하셔서 활동을 시키고 있는데,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모두 절약도 하고, 활동도 하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섭리사에서는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은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이고, 대개 흑암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와서 직접 살고, 뛰어 돌아다니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의 주관,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외부 사람이 왔었는데, 말씀만 들으면 졸립다고 하기에 “사단의 주관을 받아서 그렇다. 100%이다. 확인하자”하고 확인하니 사실이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딱 한마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하라”하셨습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이깁니다. 하늘의 신이 움직이는데, 그 까짓 것쯤이야 안 되겠습니까? 보름동안 잠을 안 잤어도 나는 이겨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신령한 말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늘 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잊는다고 하지만, 잊는 것도 있지만 남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어도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있어서 콩나물이 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뛰고 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이 춥다구요? 그렇게 추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따뜻한 날씨입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한국으로 피서를 옵니다. 30도 이상 되어 뜨거워서 정신 못 차리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야 뛰어 다니다가 너무 추우면 집안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열대 지방에서는 쭉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에어컨 틀은 실내에 들어가 봤자, 알레르기만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뛰고 달리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너무 추울 때는 방안에도 들어가야 하지만, 모일 때는 쭉쭉 모여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뛰고 달리면 아무리 영하 20도가 된다고 해도 뜨겁습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영하 80도 되는 지방에서도 산답니다. 거기서도 그 나름대로 산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영하 10도 정도는 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하면 그렇게 안 춥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같이, 항상 활동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생깁니다. 이번 주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면 안됩니다. 활동하고 뛰어 돌아다닐 때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자비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못 쓰게 되면 가치 발휘를 할 수가 없고, 쓰는 사람이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씹먹게 해주시옵소서. 목소리를 씹먹고, 말씀도 씹먹고, 모두 씹먹게 하시옵소서. 씹먹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치 못하면 흑암과 사단의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과 공의와 진리로 함께 하고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가 영원할지어다. 전국, 온 캠퍼스, 청년부들, 장년부, 중고등부 모두가 다 활발하고 뛰고 달림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게으른 것은 성경마다 지적했는데,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적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적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운데 삶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오늘 신학 모임이 있습니다.

. 내가 겪어봐도 빨리 해야 할 것을 못하니까 결국 그 해에 못하고 지나가게 되더라구요. 얼어버려서 못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겨울 전에 오라. 가축옷이 필요하다. 옥에 갇혀서 추워 죽겠다”했는데, 미적미적하다가 봄에 갔습니다. 고생 다 한 다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달려야 합니다.

. 선생님은 작년을 보고서 올 가을에는 순회에 신경 쓰고,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시다. 작년

같이 찍힐까봐서 순회에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산악회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이야 조금 늦추어도 다음에 하면 되기에 순회에 신경 썼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팔각정도 짓고, 이곳도 쌓고, 4년만에 앞산도 완공했고, 거처지도 지었습니다. 앞섬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일한 표가 더 날 것입니다. 자꾸 일을 해야합니다.

. 내가 어제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대둔산으로 기도하러 다닐 때 ‘저 산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했던 산을 어제 비로소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바짝 가서 보는데도 대둔산이 여기 전망대에서 보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기는 정면에서 보는 것이기에 골짜기의 풀이 다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약간 측면으로 보이기에 돌이 겹쳐서 보여서 돌만 꼭 찢어 보이기에 더 멋있는 것입니다. 돌도 앞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돌조경도 약간 측면에서 보면 다 붙어서 보입니다. 대둔산 바로 앞의 동그란 봉우리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멀었습니다. 갔다 오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신학생들도 거기 한번 갔다오면 좋겠습니다. 산이 너무 좋았습니다. 본부는 훈련을 며칠동안 해서 웬만한 산은 웃기게 넘어갑니다. 1달만 훈련하면 간첩으로 보내도 되겠더라고요. 가면서 “저까짓 산은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인대산도 타는 것입니다. 사람이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 사람을 강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한 풀은 서리가 왔어도 지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눈이 와도 이불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풀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참나무라고 해도 지금도 새파란 것이 있습니다. 산 위에 가니 개나리가 활짝 피어있더라고요. 강한 것은 그렇습니다. 산을 타보면 자꾸 더 험한 곳으로 가고싶은 것입니다. 시원찮은 곳은 타고 싶지도 않습니다. 험한 바위나 절벽을 타고싶습니다.

. 신학생들 밥 먹고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산에 가든지 지시를 할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나무를 하나씩 끌고 와야 합니다. 산에 갈 때는 잔뜩 끼어 입고 가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불이 납니다. 선생님이 산을 탈 때는 굉장히 빨리 다닙니다. 그러니까 옷을 껴입고 가지 마십시오. 살만 안보일 정도로 입으면 됩니다. 무얼 잔뜩 껴입고 땡구적 거리고 다닙니까? 옷을 껴입는다고 안 추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있으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덜 껴입고서 그만큼 활동하면 안 춥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하 80도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영하 80도인데 거기서도 살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는 말을 안 합니다. 생선을 잡으니까 올라오면서 그대로 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요. 몸에서 얼마나 불이 나온다고요. 운동장 20바퀴를 돌면 더워서 못 삽니다. 그 때는 냉수목욕을 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무엇이고 뛰고 달려야 합니다. 섭리사도 그렇습니다.